




CBS가 만든  성경 채널
알림바이블 대본집


Ep.065

아합 왕과 엘리아 선지자


(열왕기상 16:29~18:16)




**세월이 흘러 북이스라엘은 ‘아합’ 왕이
다스리게 되었어요.
그전에 있던 왕들도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죄를 짓기는 마찬가지였지만
‘아합’ 왕은 그중에서도 가장 나쁜 왕이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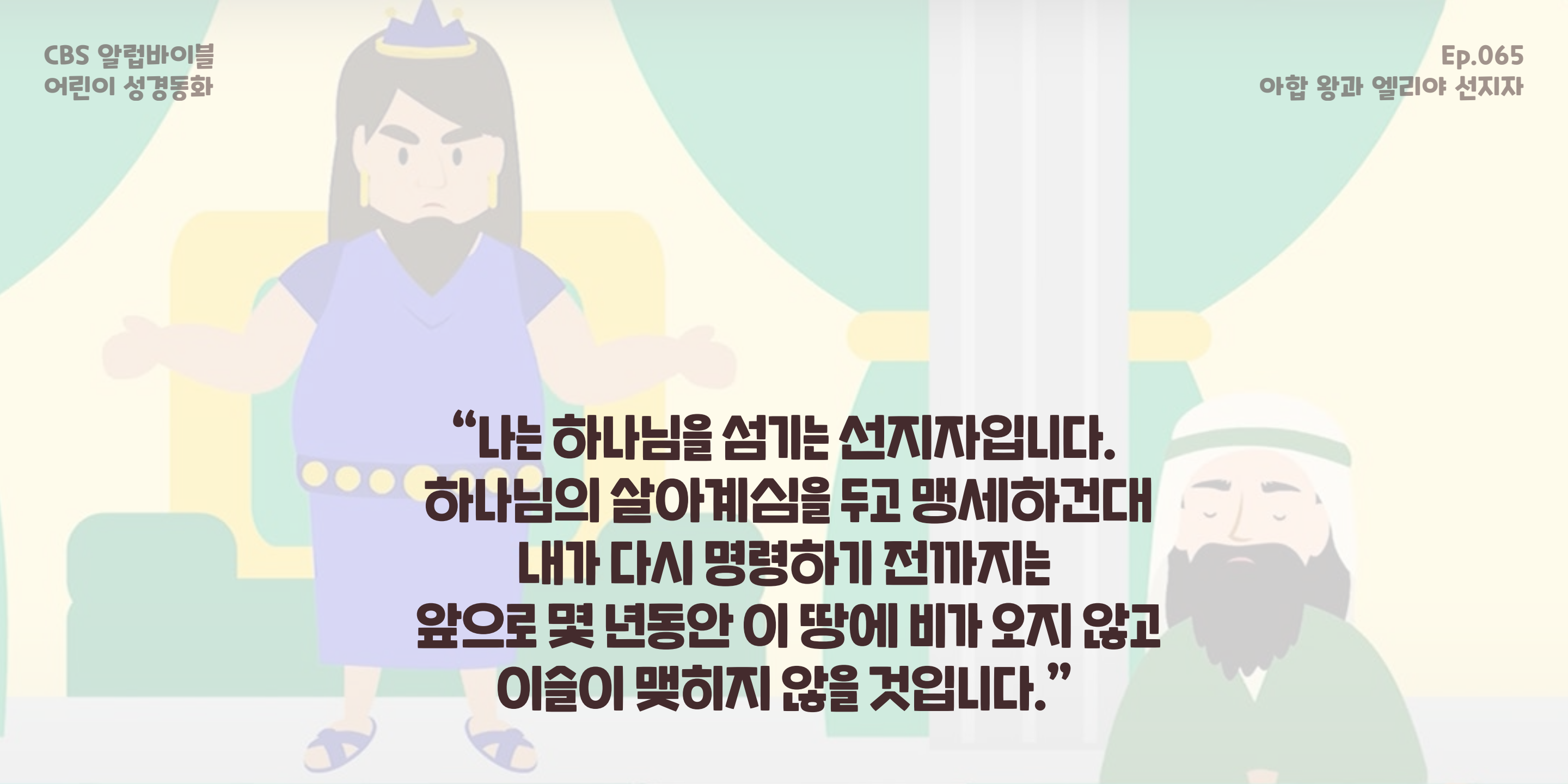
**“자, 이 곳에는 ‘바알’ 신전을 세우고.
저~쪽에는 ‘아세라’ 신전을 세우거라.
신이 많을수록 나라가 잘 돌아가는 법이다.
금송아지도 세우고, 다 세워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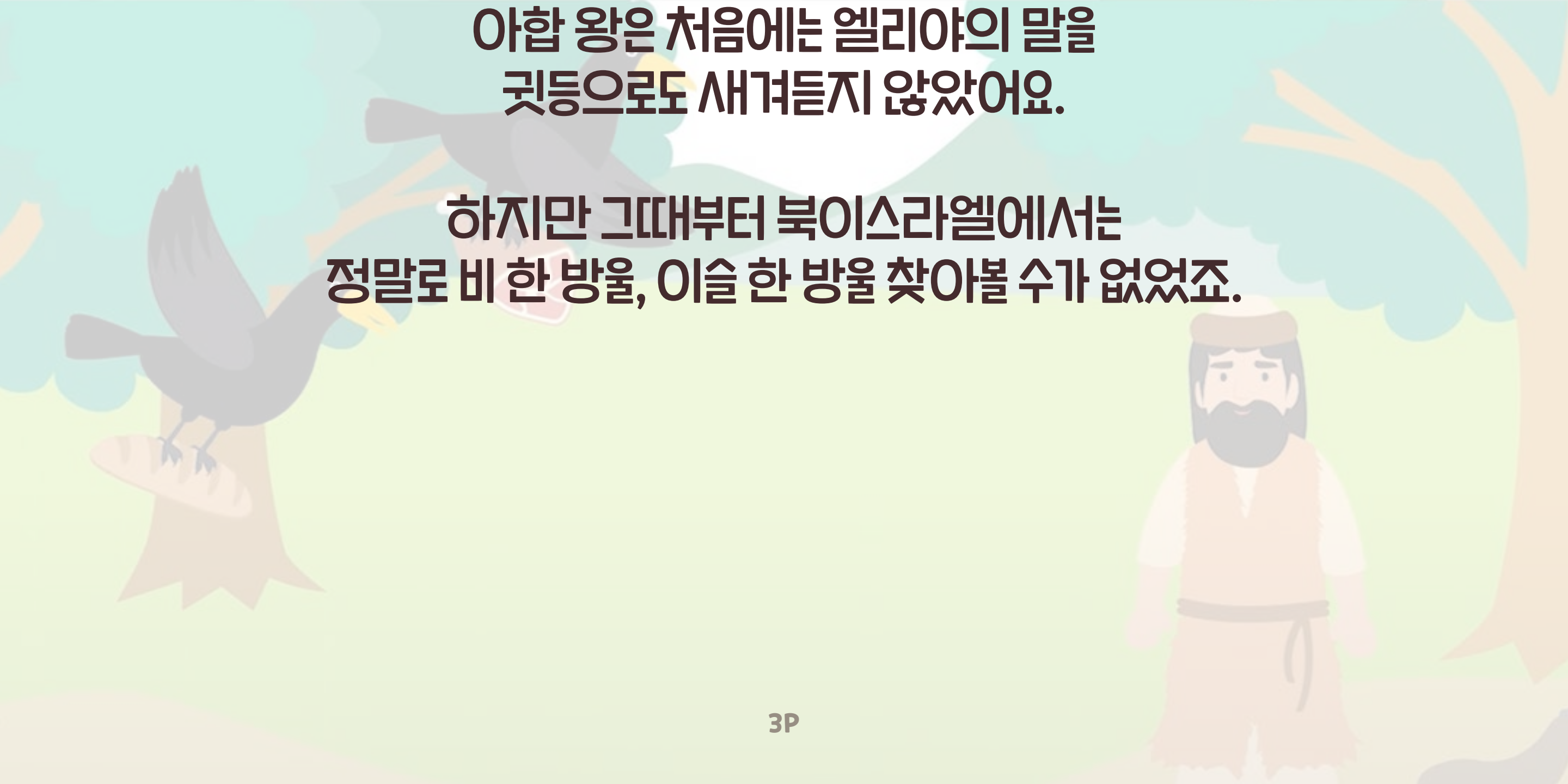
아합 왕은 사악하기로 유명한 이웃 나라의 공주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이세벨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믿게 만들었고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했죠.
아합과 이세벨의 악한 행동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무척 화가 나셨습니다!



하루는 아합 왕 앞에 이상한 차림의
한 남자가 다가왔어요.
그 남자는 낙타 가죽으로 만든 털옷을 걸치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차고 있었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건대
내가 다시 명령하기 전까지는
앞으로 몇 년동안 이 땅에 비가 오지 않고
이슬이 맺히지 않을 것입니다.”**




**아합 왕은 처음에는 엘리야의 말을
깃등으로도 새겨들지 않았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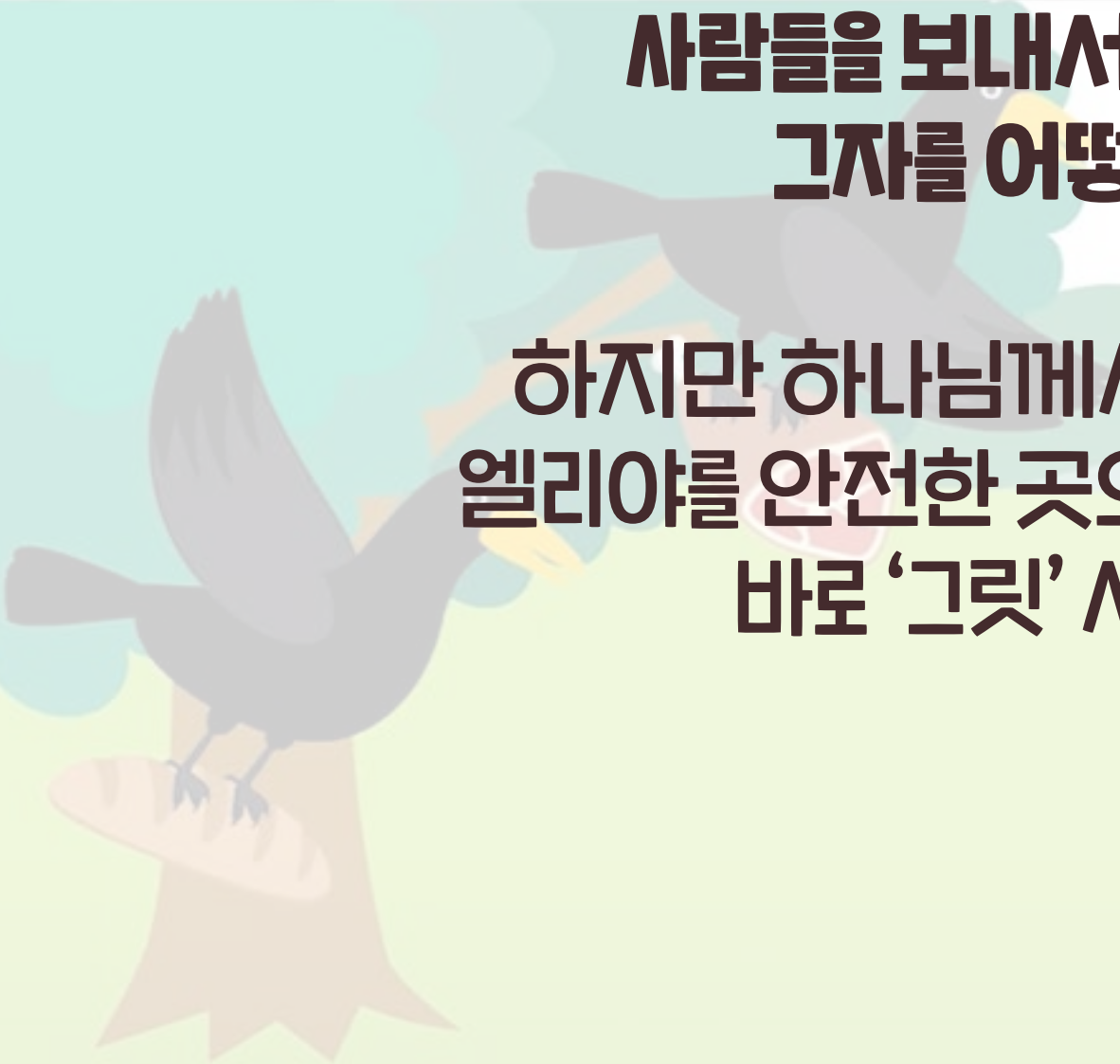
**하지만 그대부터 북이스라엘에서는
정말로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찾아볼 수가 없었죠.**



**“왕이시여, 가뭄이 너무 오래 이어져
백성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모두가 굶어 죽고 말 것입니다.”**



**“끔... 이게 다, 그 낙타 가죽을 둘러 입은
선지자인지 뉘지 하는 녀석 때문이다.
사람들을 보내서 이 땅 구석구석을 뒤지고
그자를 어떻게든 찾아 오거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이미 아시고
엘리야를 안전한 곳으로 피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바로 ‘그릿’ 시냇가라는 곳이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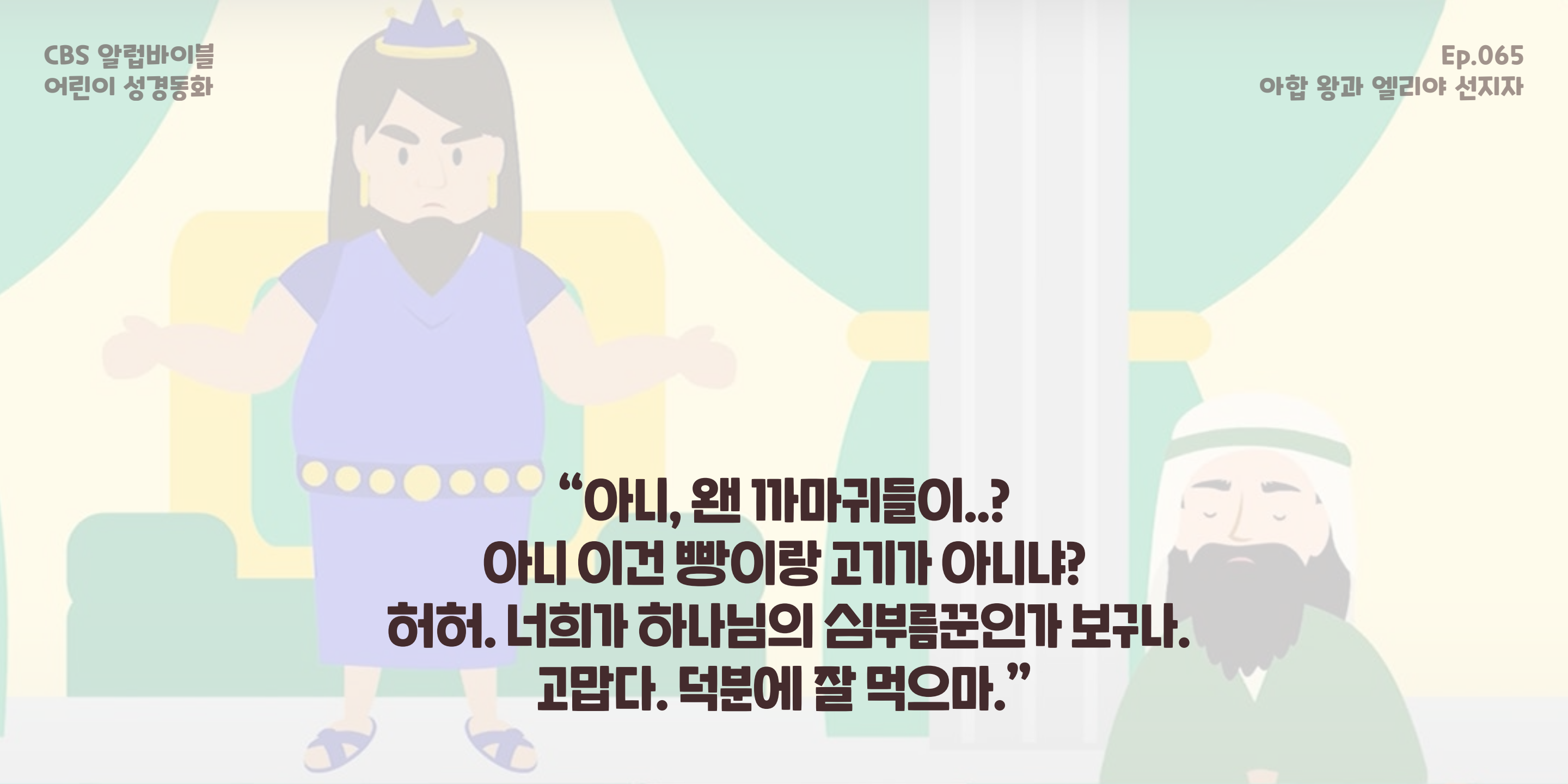


**“아유 물맛 좋다. 제가 목마르지 않도록
이런 시냇가로 이끌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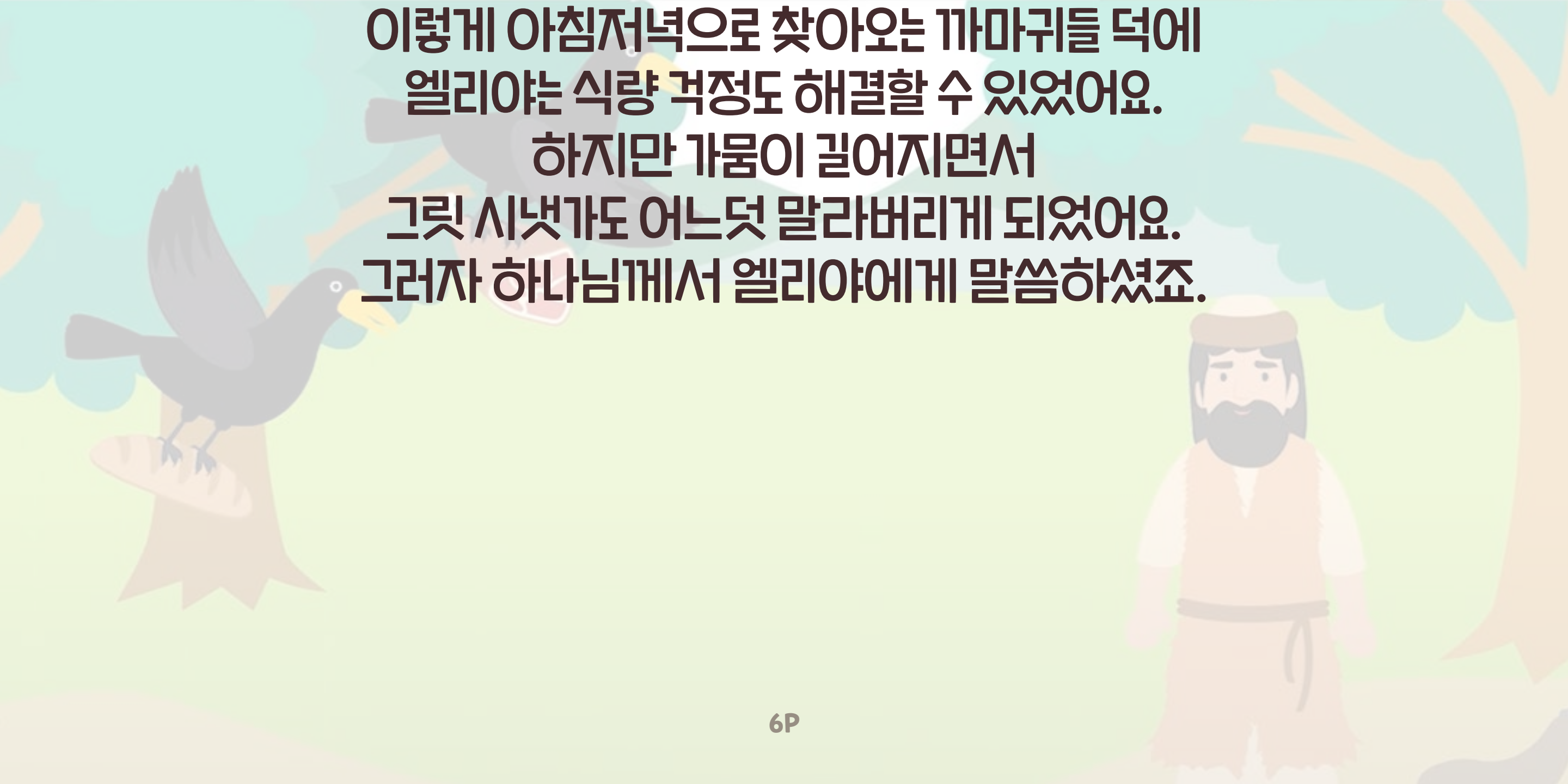
이렇게 목마를 걱정은 없었지만 엘리야는 먼 길을
이동하느라 많이 배고픈 상태였어요.
하지만 그대 마침,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까마귀들을 보내셨죠.



**“까악 까악. 애들아 저기 있다! 저 사람한테
먹이를 배달해 주자! 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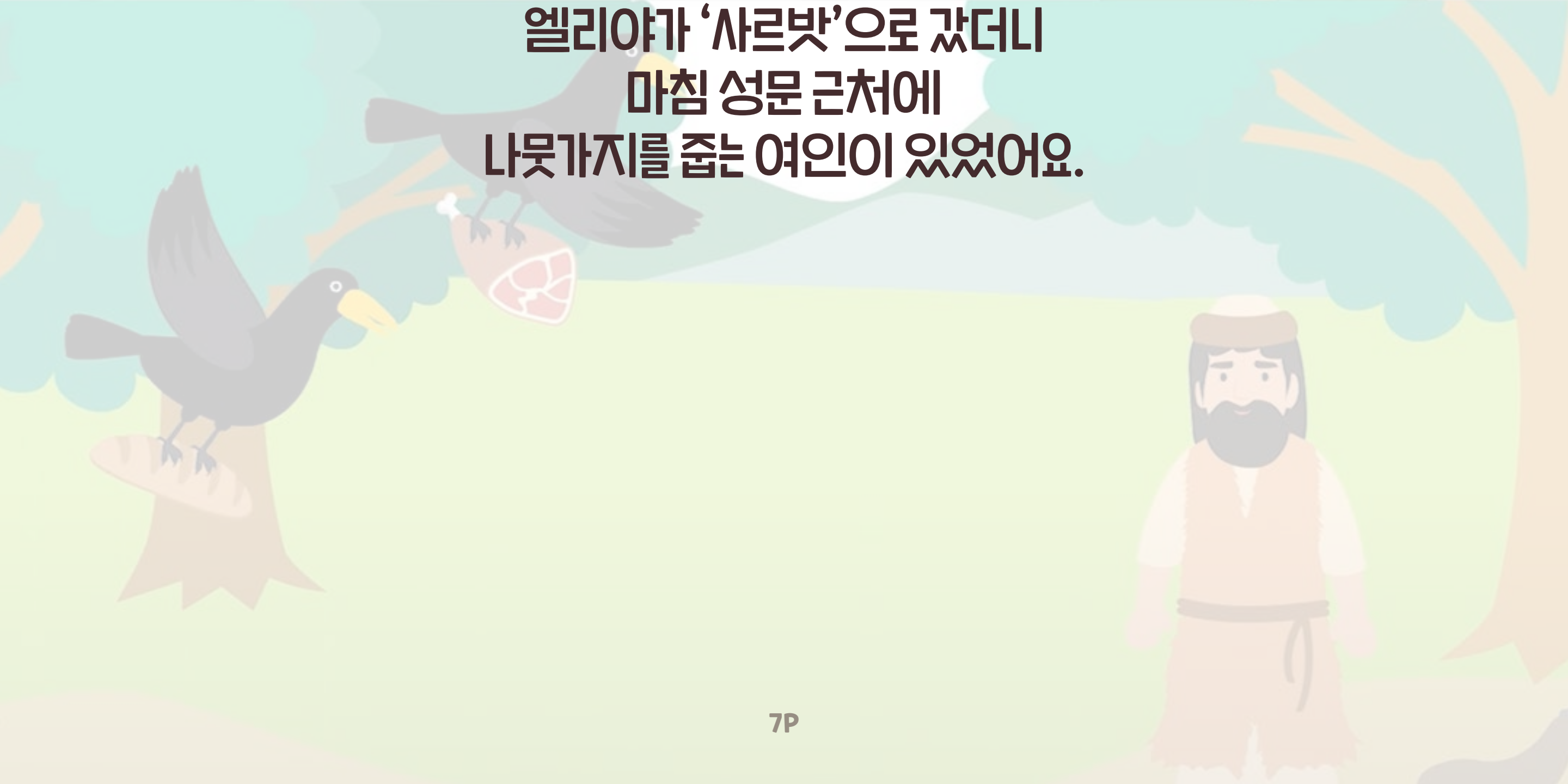
**“아니, 왜 까마귀들이..?
아니 이건 빵이랑 고기가 아니냐?
허허. 너희가 하나님의 심부름꾼인가 보구나.
고맙다. 덕분에 잘 먹으마.”**




**이렇게 아침저녁으로 찾아오는 까마귀들 덕에
엘리야는 식량 걱정도 해결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가뭄이 길어지면서
그릿 시냇가도 어느덧 말라버리게 되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죠.**



**“엘리야야, ‘사르밧’ 지역으로 이동하거라.
거기에 남편을 잃은 한 여인이 있다.
그 여인이 너를 돌보아줄 거란다.”**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갔더니
마침 성문 근처에
나뭇가지를 줍는 여인이 있었어요.**



**“흠... 저 여인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인인가 보구나.
이보시오, 혹시 물 한 그릇만
가져다줄 수 있겠소?”**



**여인이 물을 가지러 가려고 하자
엘리야가 급히 한 마디를 덧붙였어요.**




**“아, 그리고, 배가 너무 고파서 그런데
빵도 조금만 가져다주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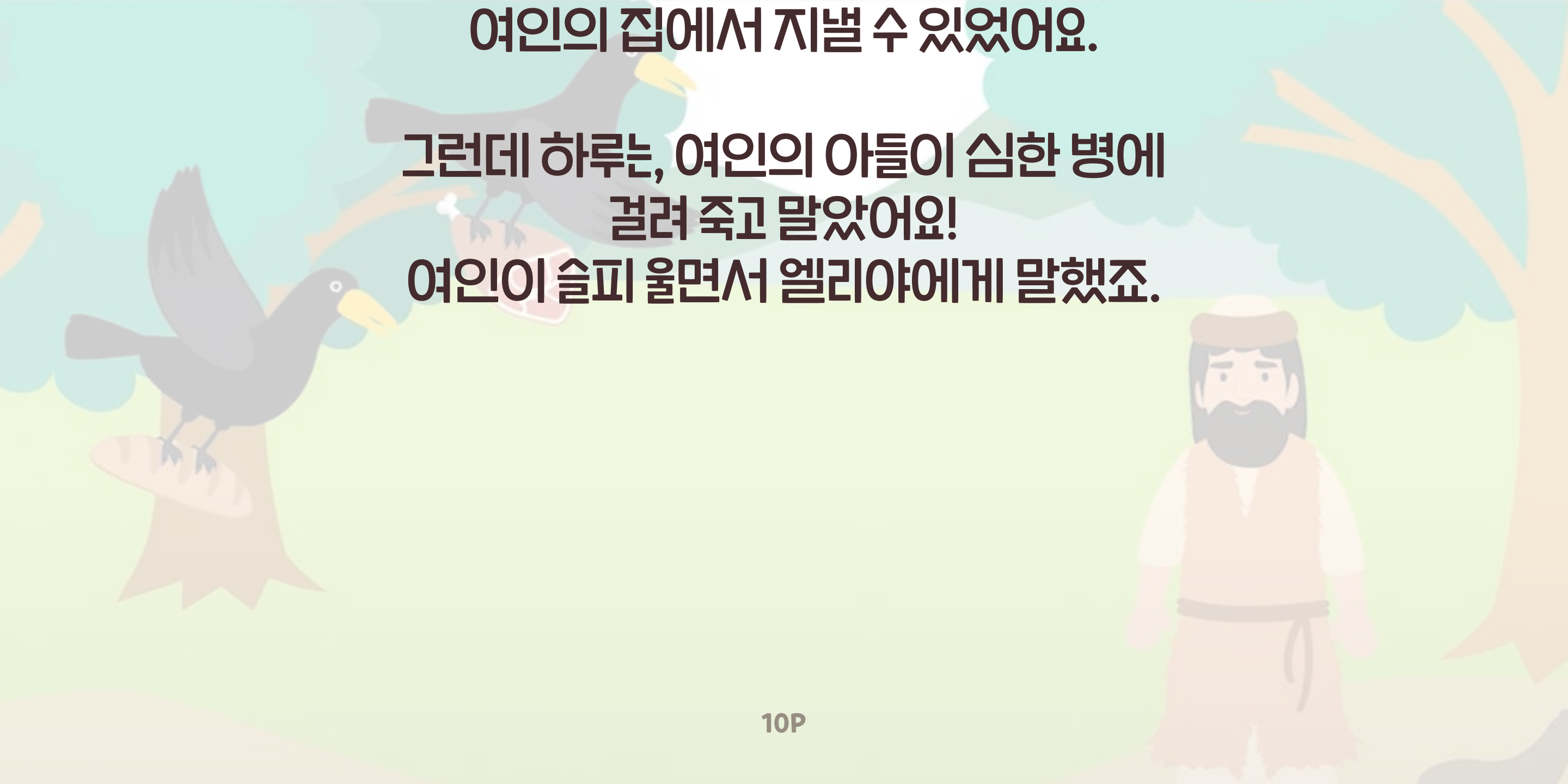
그러자 그 여인이 대답했어요.

**“죄송하지만, 당신께 드릴 빵이 없습니다.
저희 집에는 밀가루 한 움큼과 약간의
기름이 있을 뿐이지요.
지금 땔감을 주워서 제 아들과 마지막으로
약간의 음식을 차려 먹고 나면
저희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흠. 걱정하지 마시오. 하나님께서 당신과
아들을 굶게 하지 않으실 겁니다.
가서 나를 위한 빵도 조금 만들고
아들과 함께 먹을 음식도 만들어 오시오.”**



그건 정말이었어요.
여인이 엘리야의 뭇가지 음식을 만들어도
여인의 집에 있던 밀가루와 기름은
줄어들지 않았죠.
그렇게 여러 달 동안 엘리야는
여인의 집에서 지낼 수 있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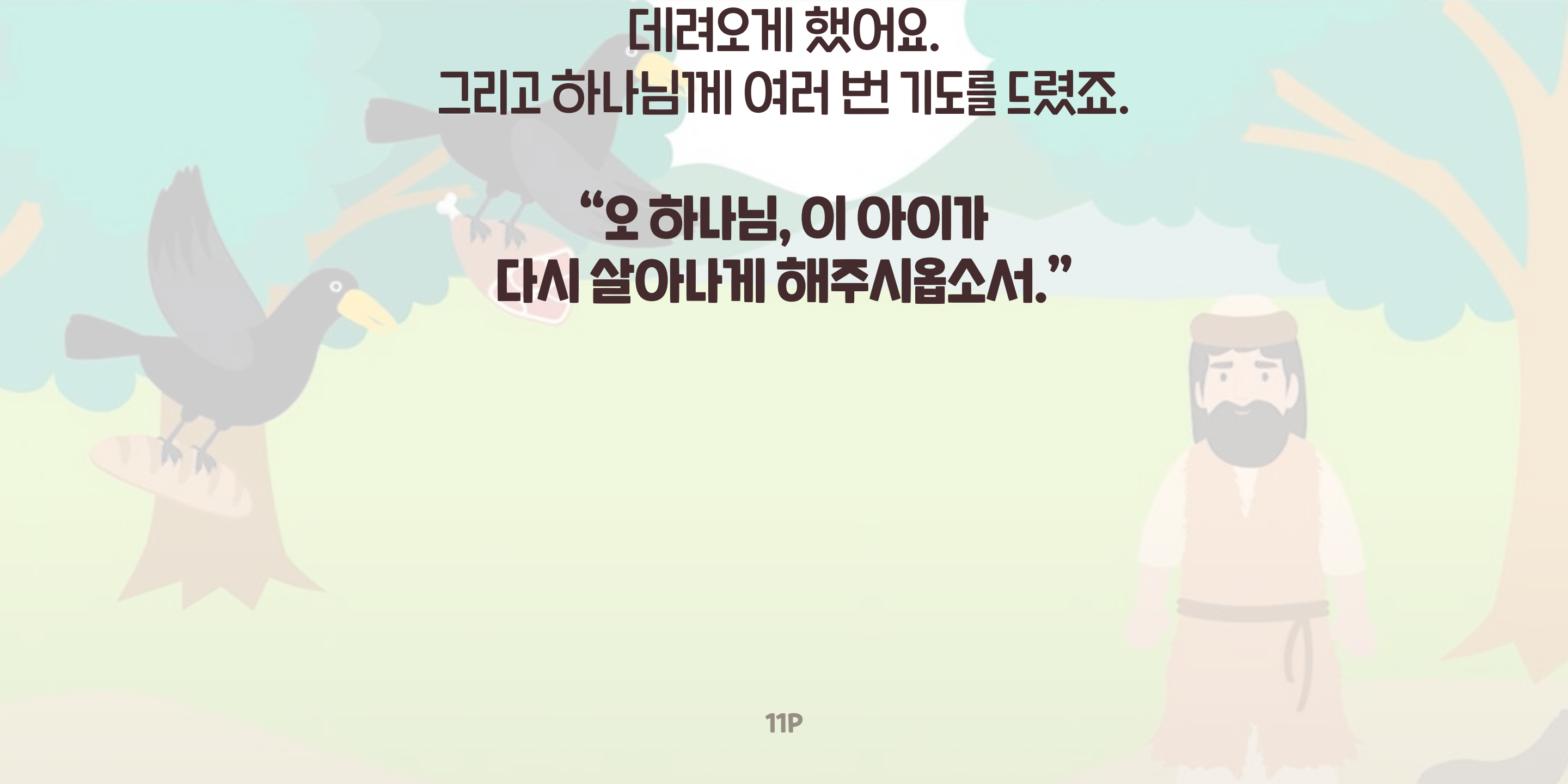
그런데 하루는, 여인의 아들이 심한 병에
걸려 죽고 말았어요!
여인이 슬피 울면서 엘리야에게 말했죠.




**“흑흑흑...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십니까
어찌 하나 뿐인 제 아들을...
이렇게 데려가실 수가 있나요... 흑흑...”**

**그러자 엘리야는 죽은 아들을 자신의 방 침대로
데려오게 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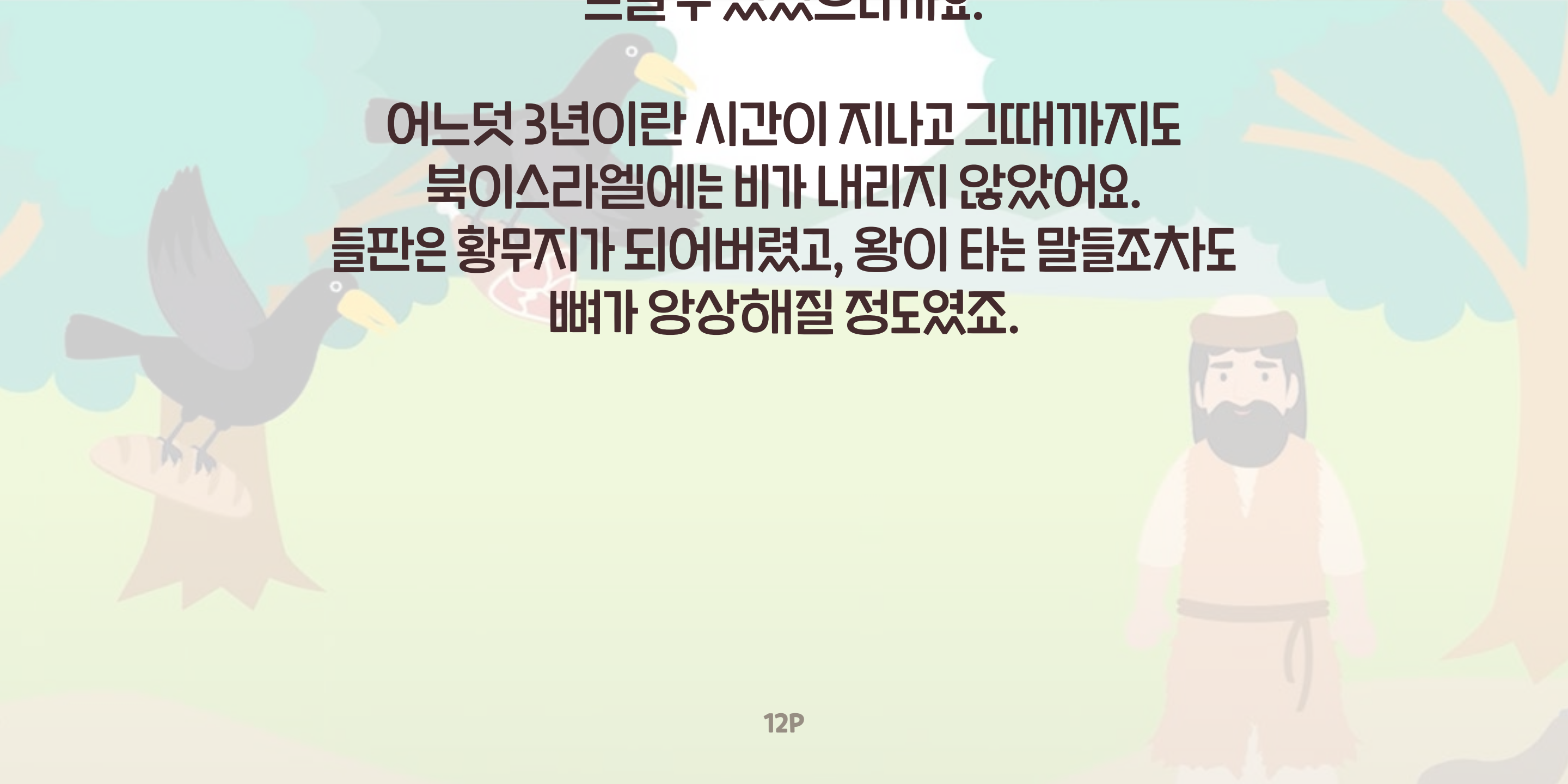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 번 기도를 드렸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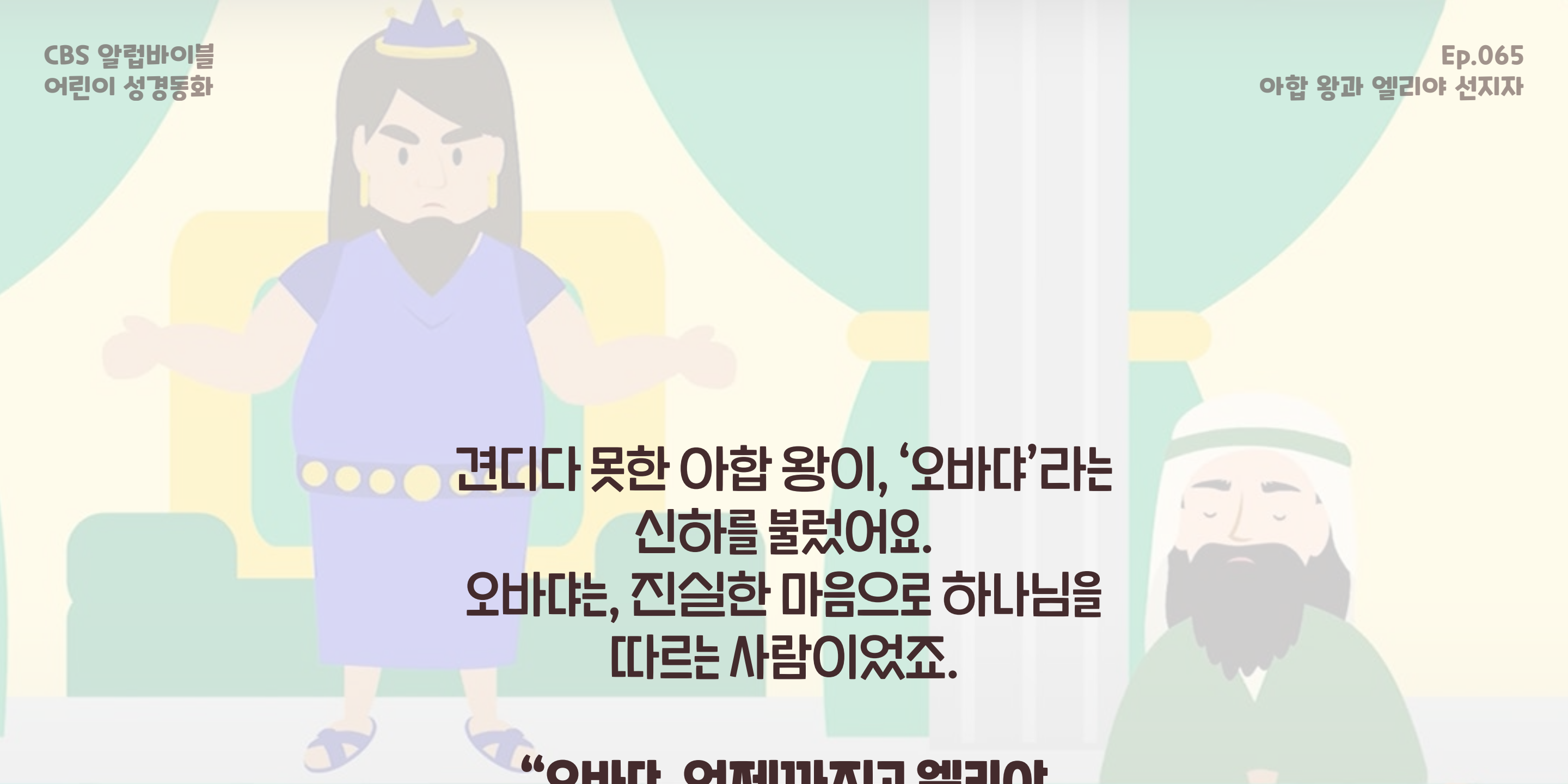
**“오 하나님,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나게 해주시옵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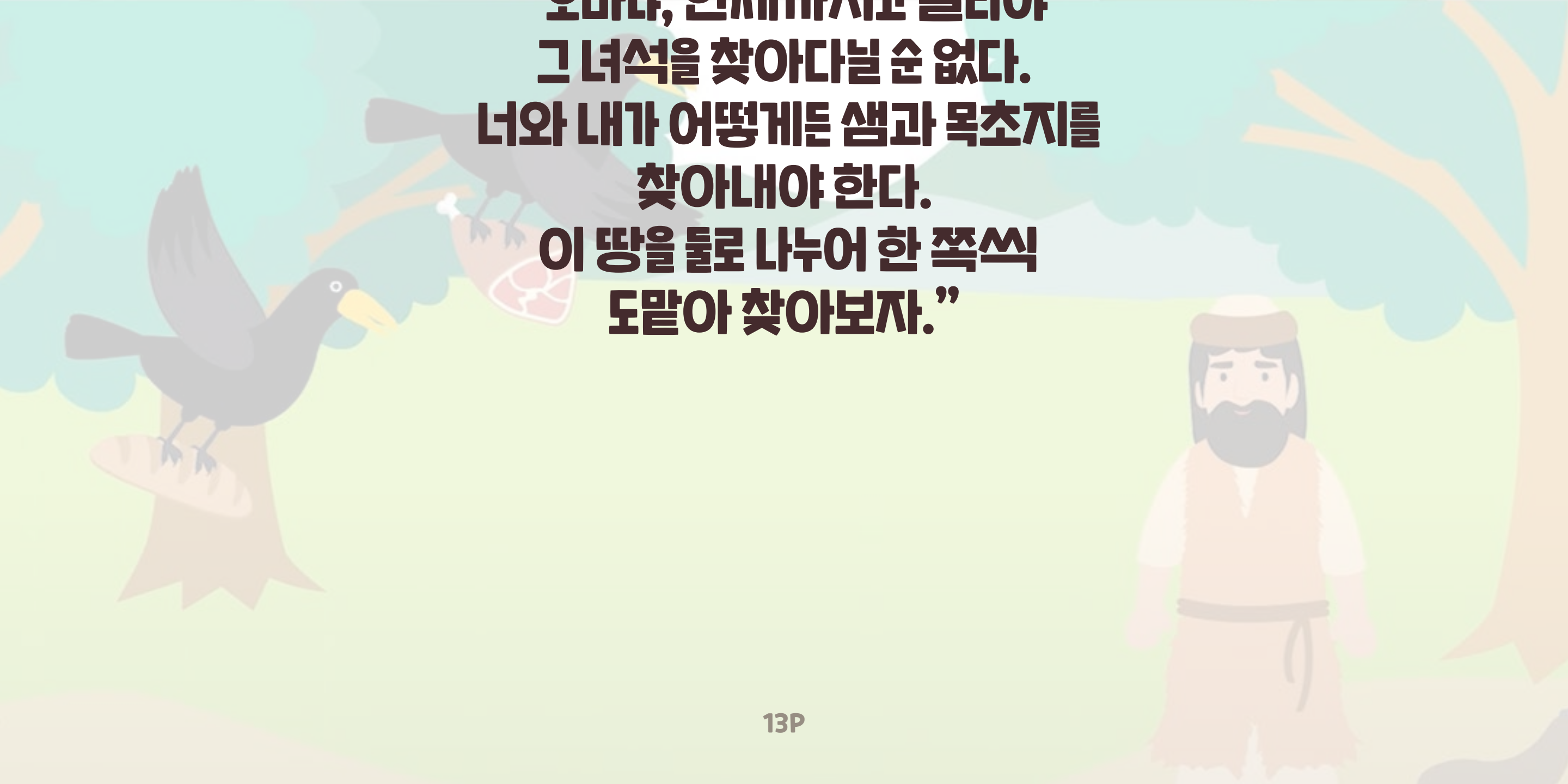
그리고 잠시 후, 평온하게 누워있던 여인의 아들이
숨을 쉬기 시작했어요!
엘리야가 아이를 안고 여인에게 데려가자
여인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죠.
하나님께서, 정말 엘리야 선지자와 함께하고 기쁨을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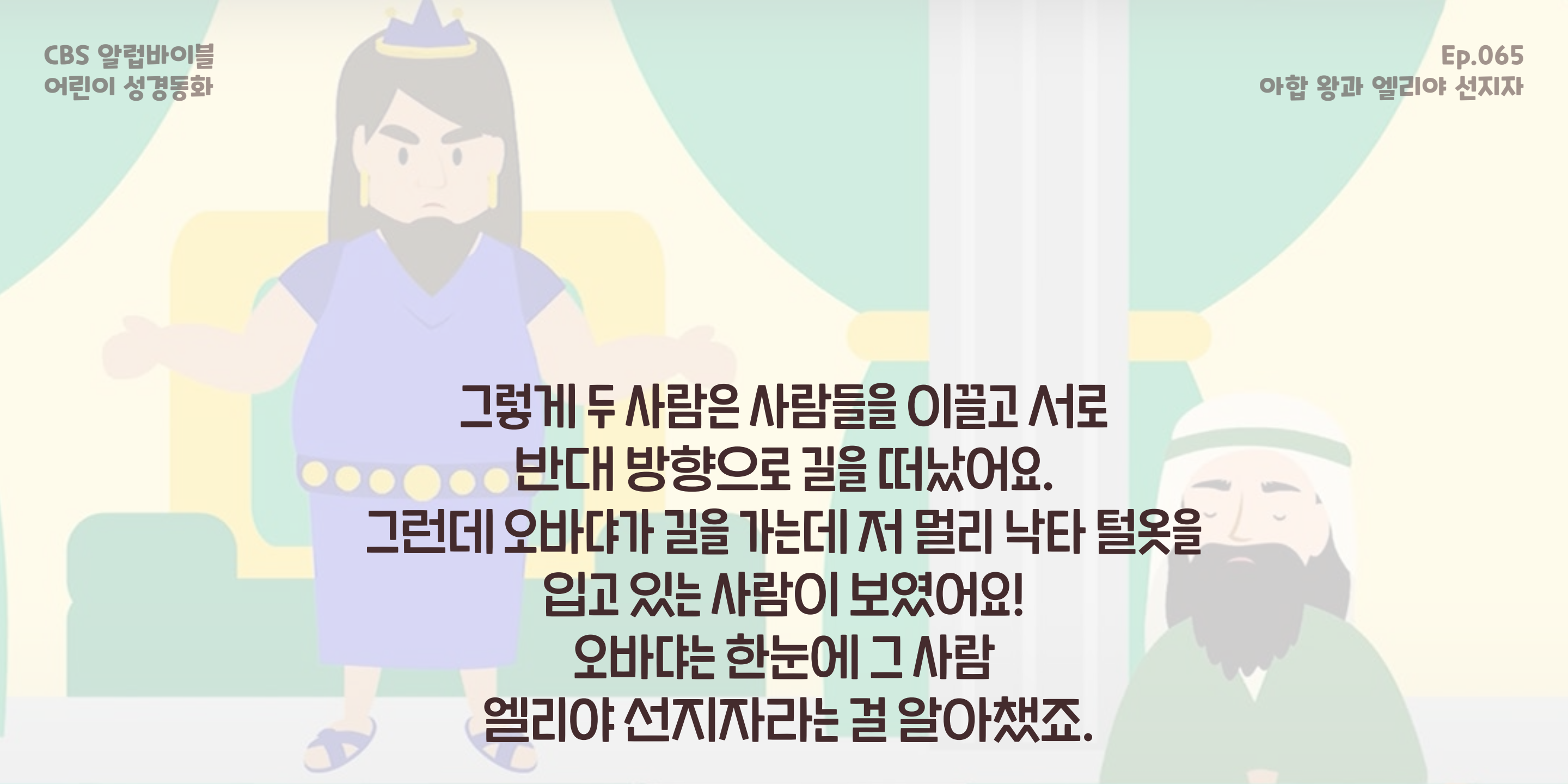
어느덧 3년이란 시간이 지나고 그때까지도
북이스라엘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들판은 황무지가 되어버렸고, 왕이 타는 말들조차도
배가 앙상해질 정도였죠.



견디다 못한 아합 왕이, ‘오바다’라는
신하를 불렀어요.
오바다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죠.



“오바다, 언제까지고 엘리야
그 녀석을 찾아다닐 순 없다.
너와 내가 어떻게든 샘과 목초지를
찾아내야 한다.
이 땅을 둘로 나누어 한 쪽씩
도맡아 찾아보자.”



그렇게 두 사람은 사람들을 이끌고 서로
반대 방향으로 길을 떠났어요.
그런데 오바댜가 길을 가는데 저 멀리 낙타 털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보였어요!
오바댜는 한눈에 그 사람
엘리야 선지자라는 걸 알아챘죠.




“아니, 엘리야 선지자가 아니십니까?
저희 왕께서 당신을 백방으로 찾고 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기다렸다는 듯
오바댜에게 말했어요.



**“알고 있소. 그대의 왕에게 가서
내가 여기에 있다고 전하시오.”**



**“예. 예? 선지자님, 제가 왕에게 그리 말했다가
이곳으로 돌아왔을 때
선지자님께서서 여기 계시지 않으면
저는 틀림없이 목숨을 잃고 말 것입니다.
어찌 저에게 그런 가혹한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자 엘리야가 태연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걱정마시오. 하나님 앞에 맹세하건대
나는 아무 데도 가지 않을 것이요.
내가 오늘 아합 왕을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오바댜는 그제야 흥분을
가라앉힐 수 있었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시킨 대로, 아합 왕에게
소식을 전하러 길을 떠났죠.

여러분, 쫓기는 신세였던 엘리야 선지자는
대체 무슨 생각으로 아합 왕에게
자기를 찾아오라고 말한 걸까요?